

# 카드사, '11조' 고객선점 나섰다... 가맹점 알림 등 총력전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선택 사용  
KB국민 ‘요일제 예약등록 서비스’  
신한·삼성·우리 가맹점 안내 실시  
하나 ‘퀴즈테스트’ 사이트 개설

본격적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카드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뜨겁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휴면 고객의 이용률을 높여려는 전략이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되는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씨티카드를 제외한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 신청가구 중 67.4%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선택한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도 대부분 카드사를 통해 지급될 것으로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신청 기간 온라인 9월6일~10월29일 카드사 홈페이지엔, 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엔 오프라인 9월13일~10월29일 카드사 제휴은행 창구, 지역사랑상품권 주민센터

사용 기간 2021년 12월 31일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6월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     | 맞벌이 가구 | 가구 단위 지급액  |
|-------------------|-----|-----|-----|--------|------------|
|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            |
| 1인                | 17만 | 17만 | -   |        | 1인가구 25만원  |
| 2인                | 20만 | 21만 | 20만 |        | 2인 50만원    |
| 3인                | 25만 | 28만 | 26만 | 2인     | 3인 75만원    |
| 4인                | 31만 | 35만 | 33만 | 3인     | 4인 100만원   |
| 5인                | 39만 | 43만 | 42만 | 4인     | 5인~ 125만원~ |
| 6인                | 42만 | 46만 | 45만 | 5인     |            |
| 7인                | 49만 | 54만 | 55만 | 6인     |            |
| 8인                | 55만 | 59만 | 64만 | 7인     |            |
| 9인                | 64만 | 67만 | 82만 | 8인     |            |
| 10인               | 64만 | 67만 | 82만 | 9인     |            |
|                   | 64만 | 67만 | 82만 | 10인    |            |

자료=행안부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11조원에 달하는 이번 지원금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공적인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만큼 이벤트성 행사 대신 특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요일제 예약등록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온·오프라인 모

두 시행 첫 주(6~10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약 등록을 미리 신청해 두면 카드사가 고객의 해당 요일에 맞춰 자동으로 신청해주기 때문에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신한·삼성·우리카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안내한다. 신한카드는 집 근처에 있는 가맹점을 알림 메시지로 알려주는 ‘우리동네 지원금 이용가게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

하나카드는 국민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퀴즈테스트’ 사이트를 개설했다. 각 카드사는 이 밖에도 지원금 사용내역 및 조회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즉각적인 수익 창출로 연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 사용처가 전통시장, 동네 식당과 마트 등 골목상권 위주로 국한됐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

맹점은 총 223만1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75.7%를 차지한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중 5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 1.3% 체크 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들 가맹점 모두 카드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수료 구간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업계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휴면 고객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카드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급 금액 이상을 쓰게 되는 만큼 고객 유지가 중요하다”며 “자사 카드를 오래도록 쓰지 않은 고객의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주거래 은행·카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미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 인프라 구축, 영업비용 등으로 수십 억원의 손해를 본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소원 기자 think@metroseoul.co.kr



지난달 13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 티머니·쿠광페이 등 11곳 신탁권고 안지켜

### >> 1면 '54조 선불결제시장'서 계속

결국 주요 카드사들은 머지포인트 할부 대금 청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이번 사태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잔여 할부금 청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구매시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를 거쳐 카드사로 최종 결제되는 구조로, 카드사에 환불 요청을 할 경우 바로 결제가 취소되지 않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6일 “카드사가 PG사에 요청하고 PG사가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의 동의를 얻으면 비로소 결제 취소가 가능한 구조로 현재 상황에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지도에 그친 소비자보호

머지포인트는 거침없이 성장한 선불결제시장의 민낯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것이 ‘환불 여부’다. 선불충전금은 소비자가 송금·대금결제 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충전해 두는 것으로 금융기관 예금액과 동일한 성격을 띤다. 선불결제 이용자가 늘면서 충전금도 조 단위로 불어났다.

이영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 7800억원이던 선불충전금 예치 잔액은 2019년 1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이마저도 행정지도 수준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급불능상태에 대비해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일부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공개된 47개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 현황을 살펴보면 ▲티머니 ▲쿠광페이 ▲이베이코리아 ▲하이플러스카드 등 11개 사업자가 외부 신탁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5일 기준 이베이코리아 등 일부 업체만 시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송금액의 경우 100%, 결제액의 경우 50%를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결제액의 예치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소원 기자

## 웃는 편의점... 대형마트, 할인행사 맞대응

### ‘국민지원금’ 두고 희비 편의점, 가맹점 홍보... 1+1 등 행사 대형마트, 추석 선물세트 등 할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 가운데, 유통 채널의 희비가 갈렸다. 편의점은 이미 각 점포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마케팅에 나서며 특수를 기대하는 모양새인 반면, 사용처에서 배제된 대형마트는 자체 할인 행사로 소비자의 발길을 유도할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는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맞춰 구매할 수 있는 행사 상품을 늘리고, 선물세트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GS25는 재난지원금이 해당 지급 월에 약 60%가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9월부터 GS25가 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전국 점포에 부착할 계획이다.

또 8월 100여종의 생필품을 대상으로 ‘생활물가안정행사’를 9월에는 350여종으로 확대해 운영하며 우리카드(개인 신용/체크카드 한정)로 구매 시 GS25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레디크’ 전 상품 1+1, BC카드 결제 시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 큰컵 1+1 행사 등 카드사와의

다양한 제휴 행사를 진행한다.

선물세트의 경우 축산상품, 소형 가전제품 등 지난해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5만9900원~8만9900원 가격대의 가성비 육우선물세트 상품을 2+1 증정하는 행사를 9월말까지 운영한다.

이마트24도 9월 한 달간 지난 해 보다 200여종 늘린 1940여종의 상품에 대해 1+1, 2+1 등 덤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간편식품, 일상용품 등 생필품 행사 상품을 30% 이상 확대했다. 유제품, 아이스크림 등은 지난 해와 동일한 수준인 반면,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먹거리와 톨휴지, 물티슈, 세제, 샴푸, 치약/칫솔과 같은 생필품 1+1을 늘리는 등 할인 혜택을 대폭 강화하며 국민지원금 사용 고객 잡기에 나선 것이다.

CU는 대용량 생필품을 모바일로 주문받아 배송해 대형마트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알뜰 소비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포켓CU’에서 대용량 생필품 할인가에 판매중이다.

편의점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인테리어·전자재 시장지배력 확대 기대

### >> 1면 'LX하우시스, 한샘 인수'서 계속

LX하우시스 측은 전략적 투자자 참여가 최종 확정되면 향후 국내 토털 인테리어 시장에서 한샘의 다양한 가

구와 소품부터 LX하우시스의 프리미엄 전자재까지 전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선 국내 노후주택 증가

로 개보수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고객들의 제품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며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1위 업체 한샘을 비롯한 브랜드 제품들의 성장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